## 현장시선



이 은 간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

사드 사태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 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 외국인 관광객은 금년 9월 전년동월에 비해 22% 늘며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 가세를 나타냈다. 사드 사태로 월 5만 여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외국인 관광 객 수는 약 15만명 수준으로 회복됐 다. 지난해 제주 관광수입은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% 늘어난 6조 5390억원이었다. 제주 경제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.

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은 사드 사태 가 진정되며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 는 제주의 관광 콘텐츠 요인보다 비교

## 다시 맞은 관광제주의 기회

는 점에 기인하고 있으나 한류 확산과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다각화 노력 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우선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자유여행 을 선호하는 젊은 연령대 관광객이 증 가하며 개별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. 개별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 에 비해 재방문 의향이 높고 소비금액 도 크다. 올해 초 제주관광공사가 발 표한 '2018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'에 따르면 외국인의 제주도 재방문 의향이 많아졌을뿐만 아니라 여행 전보다 여행 후 제주도의 이미지 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종 전 제주 관광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크게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관 광객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다. 대만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 라 중국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15% 에서 2019년 8월 39%로 확대됐다.

다만,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호조

적 가까운 거리, 저렴한 항공권 가격 등 시간・비용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.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양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작 외국인 이 소비할 관광 콘텐츠가 제대로 준비 돼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. 관광 객 수 위주의 양적 성장은 숙박업, 렌 터카 등의 난립과 과열 경쟁, 관광업 의 부가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주 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 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.

흔히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. 과거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맞은 제주 관광업의 호황기 와 비교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만 해서 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기 어렵다.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 고 제주 경제의 지속적인 밑거름이 되 기 위해서는 제주 관광의 매력을 부각 시키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. 우선 트레킹 코스 등 기존 관광 콘텐 츠를 보완하고 호텔·맛집 등의 질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. 관광지 소개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제기해온 불편사항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지역주민의 관광객 소통과 친절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. 중장기적으 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주만의 스 토리를 제공하며 관광객의 다양한 취 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

감해 한동안 제주 경제는 어려움을 겪 었다. 하지만 제주에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. 어렵게 되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돼 제주가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, 업계 및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. 외국 인에게 제주가 '잊지 못해 가고 싶고,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명소'라는 이미 지를 갖는 때를 기다려 본다.

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.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

예상하고 있습니다. 반면 세출은 인건비와 조직운

사설

영 경비, 법적의무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 다. 이에 따라 세입 대비 세출수 요를 잠정분석한 결과 가용재원 은 올해보다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제주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 10%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

정부도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쓰지 못해 남긴 예산이 무 려 8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없이 지난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사업 비를 깎았습니다. 문제는 이로 인 해 각종 사업과 행사들이 그만큼 부실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. 특히 불용액 문제가 심각한데도 '예산절감' 명목으로 무턱대고 쥐 어짜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.

##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렌터카 불법 반입

재정 어렵다고 쥐어짜는게 능사 아니다

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늘 재정의

어려움을 토로합니다. 새해 예산을

편성할 무렵이면 어김없습니다. 그

래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위해 허

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는 의지를

숨기지 않습니다. 올해도 예외는

아닙니다. 제주도의 내년 살림살이

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. 세

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세출

은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이 어려울

제주도는 2020년 예산편성과

관련 일반회계 재원분석 결과 가

용재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감

소할 것으로 봤습니다. 우선 세입

의 경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

감소하면서 올해보다 크게 줄어

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취득세

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

감소로 올해 5372억원에서 1170

억원 줄어든 4202억원으로 추산

했습니다.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감소로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

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

도내 렌터카 업계를 중심으로 소 문으로만 떠돌던 다른 지역 렌터 카 불법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 났습니다. 제주도는 일부 업체에 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를 제주 로 불법적으로 들여와 영업에 이 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 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불법 영업 에 동원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

보입니다. 무분별한 렌터카 불법 반입행 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 닙니다.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 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됩 니다. 제주도는 지금 차량 급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이 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것입니다. 거주자우선주차제 시 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민과 업 계에선 차량 감축과 억제정책으

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 입니다. 그럼에도 이를 비웃듯 버 젓이 렌터카 불법 반입이 이뤄지 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. 렌터카 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. 불법 반입 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

한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. 당국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. 다른 지역 렌터카 불법 반입 의혹 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. 그 수는 무려 1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등 억측이 많았습니다. 관광 성수 기 때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허가 없이 다른 지역 렌터카까지 동원 해 영업을 해왔지만 실체는 드러 통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다 렌터 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 의혹의 사실로 확인되면서 렌터카 업계 의 불법 반입 및 영업행위 심각성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주도로 서는 지도단속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 이번 기회에 렌터카 불법 반입 실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제도적 미비점 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### 열린마당

## 성평등정책관에서 1년… 변화를 기대하며



김 재 연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실

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관 부 서를 아시나요? 여성정책 패러다임 이 '여성발전'에서 '실질적 양성평등 실현'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조직 으로는 한계가 있어 양성평등 추진체 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 여성계, 도의회, 연구기관 등에서 나 왔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해 지난 해 8월 전국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했다. 성평등 정책을 총괄·조정하고 지역에 성평 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평등 전담부서 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.

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1년여간 달려왔고, 그 중에 성평등기획팀에서 진행해온 일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.

우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'제주처 럼'(2015~18년) 성과평가를 하고, 성 평등정책 수요 반영, 지역성평등지수 를 연계해 후속 프로젝트로 '더 제주 처럼'(2019~22년)을 수립해 추진하 고 있다. 또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 화 확산을 위해 공공·경찰·교육·언론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주 성평 등협의회를 올해 3월에 발족해 기관 별 양성평등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 고 성평등 포럼에 함께 참여하고 있 다. 이 외에도 성평등 제주청년 네트 워크 운영, 콘텐츠 공모전, 찾아가는 성평등 콘서트 등을 기획 추진해 양성 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하지만 도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닿 도록 했으나 아직은 낯설어 했고,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. 성평등정책 관 부서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는지 도 모르겠다. 지속적으로 성평등 관 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나가야 양성평등이 시나브 로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.

※ '오피니언'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## 뉴스-in

## '제2공항 제동 보도'에 해당 부처 화들짝

전략환경영향평가 정상 추진

○…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24일 해당 부처 모 두 해명자료를 배포.

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 의 보완 요청을 충실히 이행, 제2 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.

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를 반려할 예정이 없고,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. 송은범기자

고교 주민증 발급서비스 호응

○…제주시가 고교 재학생 편의를 위해 시행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 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.

제주시는 발급서비스를 신청한 관내 4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해 115명의 학생들에게 신규 주 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달 사업

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"학업 에 매진할 학생들이 읍•면•동 주 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 고 발급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고자 추진했다"며 "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"고 언급. 고대로기자

###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고심

○…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·조 직 구성을 놓고 고심.

이달 10일부터 '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 한 조례'가 시행돼 내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·상담 지 원팀 운영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.

제주도교육청은 "지금도 학교 박 청소년을 위한 교재비, 중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부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"이 라고 설명. 김지은기자

#### 부 卫

김대홍(제주해양경찰서) 아버지 광산김공 광호(前 노형초등학교 교장, 향년 **78세**)께서 서기 2019년 10월 23일 18시 14분경에 별세하 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.

- ▶일 포: 2019년 10월 25일(금) ▶ 발인일시: 2019년 10월 26일(토) 오전 7시
- ▶ 발인장소: **부민장례식장 2분향실** ▶ 장 지: **애월읍 광령리 선영**
- 아 들김대홍 며느리이인정 대석
- 딸 김정임 사위지봉수 정인 한승관

정원 정효

※ 연락처: 김대홍 010-3692-6204 김대석 010-4699-5204 지봉수 010-8630-5204 김정임 010-3694-5204 김정인 010-4441-1930 김정원 010-4942-5204

김정효 010-5478-0259

#### 부 卫

김기범(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제주시지부) 아버지 경주김공 동철 (**향년 65세**)께서 서기 2019년 10월 24일 04시 1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.

- 포: 2019년 10월 25일(금) ▶ 발인일시: 2019년 10월 26일(토) 오전 7시 30분
- ▶ 발인장소: **부민장례식장 4분향실** ▶ 장 지: 용강 선영
  - 인 정숙열
  - 들김기범
  - 김수희
  - 위 **박현종**

※ 연락처: 김기범 010-7233-4935 김수희 010-2591-4935 정숙열 010-2693-4935 박현종 010-4247-4893

## 감사의 말씀

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성권 (향년 84세)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 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 여마음속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

일일이 찾아뵈옵고고마운 말씀을 올림이도리이오나우선지면을빌려 인사를올립니다.

2019년 10월 25일

부 인 아 들	정연길 현영택 훈택	며느리	김명선 김인열
딸	창택 성택 현순희 영순	사 위	김은경 김수정 김무정 최운통

## 건계분판매

##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

• 발효기(콤포스트)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•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.

-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-

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: 010-3693-2000, 010-2696-987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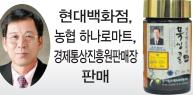
## 제주도 토지 매매

##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

·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·494,244㎡(분할매매 가능) •2차선 도로접 시멘트 도로접

기타문의 전화요망 **22** 010-5110-5660

##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약백도라지 분말 100%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



전화 064-783-8987, 010-5755-8987, 상담 010-2691-9316 홈페이지: http://www.baekdoraji.com 주산지 선흥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

🔅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

## 0 d

**5** 712–3644, 782–3644 010-4690-3636

## 전기차 사고 팝니다.

evworld.kr

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(도두일동) 1544-8236

# 탁월한 선택! 하고 호마



한라일보 광고문의

750-2828

서귀포지사

732 -5552